

흥덕사 주자인시의 「직지심체요절」 (興德寺 鑄字印施의 「直指心體要節」)

千 惠 鳳

<成均館大學教 教授>

I

고려조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자(鑄字)를 창안하여 책을 찍어냈음은 당대(當代)에 쓴 문헌에 그 기록이 실려지고 있어 진작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주자인본(鑄字印本)의 실물(實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반신반의(半信半疑)해오다가 고려주자판(高麗鑄字版)의 중조본(重彫本)을 조선전기에 거듭 번각(飜刻)하여 원형(原形)을 크게 잃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의거 그 저본(底本)의 주자인출(鑄字印出)을 강력히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조선서지(朝鮮書誌)」(Bibliographie coreenne)에서 고려 우왕(禡王) 3년(1377) 청주흥덕사(淸州興德寺)가 주자(鑄字) 인시(印施)한 것으로 기록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直指心體要節」로 약칭함)도 또한 실물(實物)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하여 외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실로 다행스러운 일은 1972년 「세계도서(世界圖書)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였던 「책의 전시회」에 고려주자본(高麗鑄字本) 「直指心體要節」 권하(卷下) 1책이 출품되어 온통 세계(世界)의 이목(耳目)을 집중케 했고 그로 인해 실물(實物) 미전(未傳)의 이유로 주자사실(鑄字事實)을 부인했던 이들의 견해에 큰 수정을 가하게 했다.

그러나 한편 그 주자인쇄(鑄字印刷)를 실시했던 흥덕사(興德寺)의 기록(記錄)이 기본사료(基本史料)와 지리서(地理書)는 물론 사찰전서(寺刹全書)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 청주목외(淸州牧外)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어떠한 연혁을 지닌 절인지 알 수 없었음은 또한 뜻있는 인사들에게 적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또 다시 공교로운 인연(因緣)이 도래하였다. 1984년도에 청주시운천동일대(淸州市雲泉洞一帶)에서 택지(宅地)를 조성하다가 사지(寺址)가 나타나서 청주대학교박물관(淸州大學校博物館)이 발굴조사하여 「청주운천동사지발굴조사보고서(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查報告書)」를 발간했는데, 그 서남쪽에서 새로운 사지(寺址)가 또다시 발견되어 계속 발굴 자사하고 공개토론을 거쳐 1986년에 「청주흥덕사지발굴조사보고서(淸州興德寺址發掘調查報告書)」를 발간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차의 발굴 조사는 금당지(金堂址)앞까지 이미 파헤쳐지고 그 흙이 택지조성(宅地造成)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지(寺址)는 물론 유구(遺構)의 원상(原狀)파악이 곤란하고 유물(遺物)이 거의 모두 흩어져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사지일대(寺址一帶)에 걸쳐 유물의 수습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갑인오월 일 서원분흥덕사금구일좌 개조입중삼십이근인(甲寅五月 日 西原府興德寺禁口壺坐 改造入重三十二斤印)」의 명문(銘文)이 새겨진 청동금구편(靑銅禁口片)과, 「황통십년경오사월 일 흥덕사의지중대사령인

왕생정토지원 불발일합구삼운구인중이근이양인(皇統十年庚午四月 日 興德寺依址重大師領仁往生淨土之愿 佛鉢一盒具銀雲口人重二斤二兩印)의 명문(銘文)이 있는 청동불발(靑銅佛鉢) 뚜껑, 그리고 1차의 발굴조사에서 청동(靑銅)을 녹인 쇠물이 파랗게 녹슬어 붙어 있는 도가니(감과(坩堝)) 20여점을 수습하였음은 참으로 큰 수확이었다. 또 寺址에서는 「대중삼년(大中三年)」의 절대연대가 표시된 명와(銘瓦)도 발굴되었다. 大中 3년은 신라 문성왕(文聖王) 11년(849)이며, 그것이 바로 寺址에서 나왔으니 이 사찰이 적어도 9세기 무렵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에는 선광(宣光) 7년 즉 우왕(禩王) 3년(1377) 7월에 청주목외(淸州牧外)의 興德寺가 주자인시(鑄字 印施)한 간기(刊記)가 표시되어 있으니 그 사찰이 14세기 말기까지 존속했음도 알 수 있게 한다. 청동주물(靑銅鑄物)인 불발(佛鉢) 뚜껑의 명문(銘文)에 표시된 「황통십년경오(皇統十年庚午)」는 의종(毅宗) 4년(1150)에 해당하는 절대연대이고, 금구(嚙口)의 「갑인년(甲寅年)」은 절대연대를 알아내기 어려우나 그 주조양식으로 미루어 「皇統十年庚午」를 전후한 시기의 甲寅年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12세기에 이 사찰이 주물(鑄物)을 다루었음도 또한 알 수 있게 한다.

비록 흥덕사지(興德寺址)의 원형(原形)이 크게 파손되어 유구의 구조와 유물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사찰의 객관적인 연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케 했지만,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지 또는 그 주위일대에서 수습한 유물에 표시된 사명(寺名)과 연대(年代), 불구류(佛具類)의 주물(鑄物), 그리고 주자본의 간기(刊記)등으로 말미암아 본 사찰의 위치와 연혁은 물론 고려에서 일찍부터 불구류(佛具類)의 주물(鑄物)을 다루어 왔고, 고려말기에 이르러 활자(活字)를 주조(鑄造)하여 불서(佛書)를 인시(印施)하였음이 뚜렷하게 뒷받침되는 것이니 그 성과(成果)가 실로 지대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II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인시(鑄字印施)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어떻게 빠리로 유출(流出)되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비장(秘藏)되었을까? 우선 그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수교조약(修交條約)을 맺은 것은 1886년이며 금년이 바로 백주년(百周年)에 해당한다. 그때 조약(條約)의 비준문서(批准文書)를 가지고 1887년에 서울에 온 이가 바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였으며, 그는 바로 서울주재 프랑스공사로 임명(任命)되었다. 그 뒤 1891년 6월에 동경(東京)으로 전속된 일이 있었지만 4년뒤인 1895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광무(光武) 10년(1906)까지 줄곧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12년간이나 서울에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서적(書籍)을 열심히 수집하였으며, 그 집서(集書)중 1887년부터 1891년 까지와 1895년부터 1899년까지의 것은 2차에 걸쳐 거의 대부분을 동양어학교도서관(東洋語學校圖書館)으로 기증하고 그중 귀중(貴重)한 자료와 1900년부터 귀국하기까지 수집한 서적 그리고 다른 수집품들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다가 타계(他界)하기 17년전인 1911년 3월에 빠리의 「드루오 경매장」(hôtel Drou)에서 경매에 부쳐 팔았다고 한다. 이 때 그 장서(藏書)가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1943)에게 낙찰되어 넘어갔는데 그 뒤 그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 기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세상(世上)에 알려진 알려진 것은 이보다 앞서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엮은 「조선서지(朝鮮書誌)」(Bibliographie Coréenne)에 수록됨으로 인해

비롯한다. 그 서지(書誌)는 본편(本編)이 3책이고 부록(附錄)(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이 1책인데, 본편은 1-2책이 1895년(MDCCCXCV), 제 2책이 1897년(MDCCCXCV II)에 출간(出刊)되고 부록은 1901년(MDCCCXCV)에 속간되었다.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그중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1901년에 벌써 세상에 알려진 셈이다. 그러나 그 책이 동양어학교(東洋語學校)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고 목록에도 그 소장처가 적혀지고 있지 않아 어디에 비장(秘藏)되고 있는지 그 소재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 실물(實物)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2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도서(世界圖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책의 전시회」에 출품됨으로 인하여 수집이후 처음으로 세상에 공표된 것이니 아닌게 아니라 세계(世界)의 이목(耳目)이 온통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리겨레에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를 창안했음을 공인받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야말로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었다.

우리 정부(政府)에서는 당시(唐詩) 동도서관(東圖書館)에 봉직(奉職)하고 있던 박병선여사(朴炳善女史)의 도움으로 원본(原本)크기로 흑백영인(黑白影印)하고 고증적(考證的)인 해설(解說)을 국(國)·일(日)·영(英)·독(獨)·불어(佛語)로 써서 2책 1갑(匣)으로 장책하여 1973년 국내외에 널리 퍼낸 바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흥덕사지興德寺址의 새로운 발견(發見)과 더불어 때마침 유럽을 순방하시던 전대통령(全大統領)이 프랑스 엘리제궁(宮)에서 미테랑 대통령(大統領)의 호의(好意)로 친히 열람하고 두 나라의 정상(頂上)이 인류초유(人類初有)의 금속활자(金屬活字) 완본(完本)임을 재확인(再確認)한 것을 계기(契機)로 원색판(原色版)으로 새로 영인(影印)하고 해설(解說)도 국(國)·중(中)·일(日)·영(英)·독(獨)·불어(佛語)로 다시 써서 온 세계에 널리 퍼내기로 하였으니 우리에게는 더 없는 자랑이며 긍지라 하겠다.

III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개경(開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地方)의 사찰(寺刹)인 흥덕사(興德寺)가 주자인시(鑄字印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법(技法)이 사뭇 치졸(稚拙)한 편이다. 그 주자인쇄(鑄字印刷)의 서지적(書誌的) 특징(特徵)을 고증적(考證的)인 시각(視角)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本文)의 행렬(行列)이 곧바르지 않고 좌우(左右)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빼돌어졌으며, 그 중 어떤 글자는 몹시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제 12장 뒷면 13행, 제 21장 앞면 3행 및 제 29장 앞면 10행에서 「일(日)」의 글자를 볼 때 아예 거꾸로 배자(排字)된 것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찍혀진 글자에 있어서 먹색의 농박도 차이가 심하여 어떤 글자는 시커멓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글자는 획의 일부(一部)가 찍혀지지 않은 것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활자본(活字本)과 목판본(木版本)을 구별하는 중요한 식별법(識別法)이 된다. 목판본(木版本)은 판하서(板下書)를 정서(淨書)할 때 계선(界線)을 치고 옆 줄까지 쳐서 정확하게 네모꼴을 만든 다음 책장의 접은 속에 넣고 그 투시되는 네모꼴안에 글자를 해정하게 써서 새겼기 때문에 행렬(行列)이 바르고 기울어지거나 거꾸로된 글자가 없지만, 활자본(活字本)은 초기(初期)의 것일수록 크기와 모양이 꼭 같이 않은 활자(活字)를 하나하나 배자(排字)하여 판(版)을 짜서 찍어내기 때문에 자열(字列)이 비뚤어지고 글자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지칫하면 거꾸로 배자(排字)되기도 하였다. 또 목판본(木版本)은 판판한 면에 먹물을 칠하여 찍어내기 때문에 먹색이 극단적으로 진하거나

희미한 차이 없이 순연(純然)하지만, 활자본(活字本)은 활자면(活字面)이 판판하지 못하고 기복(起伏)이 생겨 먹색의 농박도 차이가 극단적이며 활자(活字)가 반듯하게 배자(排字)되지 않은 경우는 글자 획의 일부(一部)가 찍혀지지 않은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이 첫 번째의 사항은 활자본(活字本)임을 고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시하는 서지적(書誌的) 특징이 되므로,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목판본(木版本)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크게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판(印版)틀의 사주(四周)를 돌린 선(線)을 광곽(匡郭)이라 하는데, 그 광곽(匡郭)의 네 모퉁이가 고착된 단변(單邊)으로 되어 있고, 그 광곽(匡郭)의 상하변(上下邊)에 계선(界線)까지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매반엽(每半葉)의 배자행수(排字行數)는 11행이지만 각행(各行)의 자수(字數)는 활자의 크기가 일정치 않아 18-20자와 같이 1·2자의 출입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옆 줄의 글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여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심한 경우는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래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붙거나 엇물린 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활자의 주조(鑄造)와 조판(組版) 기법(技法)이 발달된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 기술(技術)이 아주 치졸한 초기(初期)의 활자본(活字本)에 한하여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에서 최초로 태종(太宗) 3년(1403)에 관서(官署)가 주조(鑄造)한 계미동활자(癸未銅活字)는 대폭 개량되어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른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기술(技術)이 아직 미숙하여 배인(排印)에 있어서는 비슷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계미소자(癸未小字)로 찍은 「신간류편력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을 보면 배인자수(排印字數)에 1·2의 드나듦이 있어 더욱 비슷하다. 이렇듯 계미자(癸未字)의 인본(印本)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주자인쇄술(鑄字印刷術)이 아주 치졸한 초기의 활자본(活字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13세기(世紀) 전기에 찍은 관주활자판(官鑄活字版)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중조본(重彫本)을 조사해 보면 비록 번각(飜刻)이긴 하지만 그 새김이 정교하여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고 자양(字樣)이 균정(均整)한 편이며, 윗 글자와 아랫 글자의 획이 서로 물린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13세기 전기에 이루어진 관주활자(官鑄活字)의 인쇄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와같이 발달된 관주인쇄술(官鑄印刷術)이 원(元)나라의 굴욕적인 지배를 받자 그 기능이 점차로 마비되어, 1세기이후에 사찰이 활자를 주조할 때는 사찰(寺刹) 나름의 채래 방법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번째의 사항은 활자(活字)의 주조(鑄造) 및 조판(組版)의 기술이 사뭇 치졸한 활자본(活字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전재(傳在)의 초기 활자본(活字本)이 이를 여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이 흥덕사(興德寺)의 활자(活字)는, 중소자(中小字)의 두 종류가 주조되어 그 중 중자(中字)는 본문(本文), 소자(小字)는 쌍행(雙行)의 세자(細字)를 찍는 데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소자(小字)는 세주(細註) 이외에도 본문용(本文用)의 중자(中字)를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경우 대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용에 있어서는 단행(單行)으로 비인(批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마치 세주(細註)처럼 쌍행(雙行)으로 비인(批印)한 것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우왕(禑王) 4년(1378) 6월 여주(驪州) 취암사(鷲巖寺)에서 간행한 목판본(木板本)의 본문과 대조할 때 판이하게 가름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자(中字)의 부족을 메움에 있어서는 자양(字樣)이 부정(不整)하고 도각(刀刻)의 흔적

이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글자가 혼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손쉽게 나무에 새겨 부족을 충용(充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소자(中小字)의 자체(字體)는 고려후기에 유행했던 송설체(松雪體)이나, 주조가 거칠어 그 자양(字樣)이 고르지 않고 글자 획도 굵기와 가늘기의 차이가 심하여 획에 끊김이 있어 부정(不整)한 편이다. 동일자(同一字)에 있어서 같은 자양(字樣)의 것이 거의 없거나, 글자 획이 균정치 않고 끊김이 있는 것은 활자의 주조방법(鑄造方法)과 기술(技術)이 다르고 미숙했기 때문임은 물론일 것이다. 고려의 궁주법(宮鑄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조에 있어서는 나무에 어미자를 새기고 인판(印板)에 갯벌의 고운 흙인 해감 모래를 관관하게 편 뒤 그 어미자로 필요한 수만큼 찍어 자형(字型)을 만든 다음, 녹인 쇠물을 붓고 식으면 하나 하나를 깎고 다듬어서 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동일자(同一字)라면 그 자양(字樣)이 꼭 같고 글자 획이 균정된 것을 양산(量産)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조 후기까지 민간에서 사용해 왔던 주조방법(鑄造方法)은 질그릇 만드는 찰흙을 곱게 뺏아서 잘 이겨 사주(四周)에 테두리를 돌린 나무 판위에 관관하게 펴서 햇볕에 쪼여 반쯤 말린 뒤, 종이에 크고 작은 글자를 임으로 해서(楷書)하여 밀랍을 녹여 판 위에 뒤집어 붙이고 옴폭 새김을 한 다음, 녹인쇠물을 붓고 식으면 그것을 들어 내어 활자 하나하나를 잘라 줄로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자본(字本) 쓰기에 따라 자양(字樣)이 좌우(左右)되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찍은 고려의 사주활자(寺鑄活字)보다는 정교롭고 닦은 자양(字樣)의 활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한편 사찰이 비교적 근대에 이르기까지 적용해 온 주물법(鑄物法)중, 활자를 주성하는 방법도 조사해 보았다. 활자 모양으로 만든 정제(精製)의 밀랍에 글자를 새겨 도가니 만드는 오토(烏土)와 찰흙을 섞은 재료로 싸서 자형(字型)을 만들어 구운 다음, 그것을 한 곳에 모아 그 개개의 자형(字型)에 녹인 쇠물을 붓고 식으면 줄로 깎고 다듬어서 완성시켰다. 이 경우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는 자형(字型)을 구울 때 녹아 없어지며, 자형(字型)도 자획(字劃)이 쉬운 것은 몰라도 거의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동일자(同一字)에 있어서 꼭 같은 자양(字樣)의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사주활자(寺鑄活字)도 한 판면(版面)에 동일(同一)한 자양(字樣)의 글자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찰(寺刹) 재래의 전통적(傳統的)인 방법에 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동일자(同一字)에 있어서 꼭 같은 자양(字樣)의 활자(活字)가 거의 없음에도, 어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감모래를 이용한 관주법(官鑄法)(green sand casting)을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초기활자(初期活字) 인본(印本)들의 분석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번에 청주(淸州)에서 세예가이자 조각가인 오국진(吳國鎭)씨가 결락(缺落)된 권하(卷下) 제1장을 주자(鑄字)로 찍어 복원하는데 적용한 방법도 결국 사찰의 전통적(傳統的) 방법에 준거하였다. 정제(精製)의 밀랍대신 「파라핀」(paraffin)랍을 활자 크기로 만들고 자본(字本)을 그 사주본(寺鑄本)을 그 사주본(寺鑄本)에서 모사(模寫)하여 그대로 새긴 다음, 오토(烏土)와 찰흙을 섞어 만든 재료 대신 석고(石膏)를 사용하여 둘러싼 후 열(熱)을 가해서 「파라핀」을 녹여 없애고 그 자형(字型)에 녹인 쇠물을 부어 활자를 만들어 냈다. 이와같은 주조방법(鑄造方法)은 동일자(同一字)를 모사(模寫)하여 자본(字本)으로 하지 않는 한(限) 같은 자양(字樣)의 것이 나타나지 않음을 인지(認知)할 수 있다.

넷째, 판심(版心)을 볼 때, 흑구(黑口)와 어미(魚尾)가 전혀 없는 것이 조선조의 활자판(活字版)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 판심(版心)에는 다만 판심제(版心題)와 권차(卷次) 그리고 장

차(張次)를 나타내는 수자(數字)만 배자(排字)되고 있다. 판심제(版心題)와 권차(卷次)는 「직지하(直指下)」와 같이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자양(字樣)이 서로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양(字樣)과 판식(版式)을 조사해 보니, 2개의 인판(印版)을 마련하여 서로 번갈아 조판인쇄(組版印刷)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한 인판(印版)은 끝장의 판심제(版心題)인 「직지(直指)」에 있어서 「지(指)」의 한 자(字)가 탈락(脫落)되기도 하였다. 탈자(脫字)는 그 외에도 제2장 뒷면 8항 끝의 「동(動)」의 글자가 있으며 인쇄(印刷)된 뒤에 보서(補書)하였다. 그리고 극히 일부(一部)의 인사이지만, 광곽의 네모퉁이 고정되고 광곽의 위 아래 변에 계선(界線)이 고착되어 있는 점, 글자의 위 아래 획이 서로 물린 것이 빈출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한 판면(版面)에 동일한 자양(字樣)의 글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등에 집착하여 목판본(木版本)으로 오해(誤解)하고 있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식(版式)의 일면만을 보더라도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목판본(木版本)이 아니고 조판인쇄(組版印刷)한 활자본(活字本)임이 여실히 입증(立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권말에는 「선광사칠년정사(宣光七年丁巳)(우왕(禡王) 3, 1377)7월(月) 일(日) 청주목외(淸州牧外) 흥덕사주자인시(興德寺鑄字印施)」에 이어 그 뒤쪽에 「연화문인 석찬 달?, 시주 비구니 묘덕(緣化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의 간기(刊記)는 뒤에 거듭 간행하면서도 저본(底本)의 기록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찰본(寺刹本)에 있어서 조연문인(助緣門人) 시주(施主)들만은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간기(刊記)중 석찬(釋璨)은 바로 경한(景閑)의 시자(侍者)로서 그의 스승이 찬술한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을 활인(活印)하자 곧 여주(驪州) 취암사(鷲巖寺)에서 그것을 다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하는데 착수하여 이듬 해인 우왕(禡王) 4년(1378) 6월에 완성시키는데도 주동적인 몫을 하였다. 달기(達淇)도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의 이색서(李穡序)에 의하면 석찬(釋璨) 그리고 법린(法鄰)등과 함께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주자인시(鑄字印施)」한 1년 뒤에 취암사(鷲巖寺)에서 그 어록(語錄)을 간행(刊行)하는데 모록(募錄)한 문인 그리고 목판본(木版本)에 표시된 민간시주인 정순대부(正順大夫) 판통예문사(判通禮門事) 김계생(金繼生)등도 바로 당대의 인물들이니,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위의 간기(刊記)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우왕(禡王)3년(1377) 7월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鑄字)로 인쇄(印刷)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주자본(鑄字本)이 우왕(禡王)3년(1377) 7월에 흥덕사(興德寺)에서 인쇄되었는데, 어째서 그 다음해 6월에 또 다시 취암사(鷲巖寺)에서 목판본을 새겨냈는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인본(印本)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사주본(寺鑄本)과 조판면(組版面)에서 비슷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주조술(鑄造術)이 크게 개량(改良)되어 활자의 크기와 계미자(癸未字)의 하루 인출량(印出量)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초기의 고활자인쇄라면 그 기술이 미숙하여 인쇄도중 자주 활자의 동요가 생겨서 인출부수에 큰 제한을 받았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주활자본(寺鑄活字本)의 경우도 그런 제한을 받았음을 그 인쇄된 판면(版面)의 주조(鑄造) 및 조판(組版) 방법으로 미루어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한(景閑)이 만년(晩年)에 거처하다가 입적(入寂)한 취암사(鷲巖寺)에서 그의 문인들이 다른 일반시주들의 도움을 얻어 또 다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물론 「어록(語錄)」까지, 곧 간행에 착수하여 다음 해 6월과 7월에 각각 완성시키고 널리 찍어 배포함으로써 스승의 선덕(禪德)을 본받게 하였던 것이다.

VI

여기서는 고려 금속활자인쇄에 대하여 개관한 다음, 이 주자본(鑄字本)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고려 활자인쇄사(活字印刷史)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려 금속활자인쇄의 기원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문헌에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전존의 자료에 의하면 최씨일족(崔氏一族)의 무단 정치가 비교적 안정기로 접어든 13세기 전기에 그 주조인쇄(鑄造印刷)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 중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자로 찍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강화(江華)로 피난 천도한 고종 26년(1239)에 강화 무인정부의 제1인자인 최이(崔怡)의 명령에 의해 중조(重彫)된 사실이 될 것이다. 그가 쓴 발문을 보면 이 「증도가(證道歌)」는 선문(禪門)에서 매우 긴요한 책으로서 참선하는 이들이 모두 그것에 의해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 터인데,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인(工人)을 모아 주자본(鑄字本)을 중조(重彫)하여 널리 보급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중조(重彫)의 바탕이 된 「주자본(鑄字本)」인 것이다. 옛적의 주자(鑄字印刷)는 그 기술이 오늘날과 같지 않고 미숙하여 인출부수(印出部數)에 제한을 받았으니 얼마나 찍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인본(印本)마저 피난 천도할 때 황급한 나머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거나, 또는 찍어낸지 오래되어 그 인본(印本)을 얻어 보기가 매우 어려웠던 듯하다. 한편 그 당시는 몽고에 항전(抗戰)하고 있는 전란시기인지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유달리 그 책의 수요가 격증되어, 이렇듯 주자본(鑄字本)을 번각(翻刻)하여 다량으로 보급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그 주자본(鑄字本)은 천도이전의 어느 때에 진작 개경(開京)에서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다행히도 근년에 당시 주자본(鑄字本)을 중조(重彫)한 이른바 관주판(官鑄版) 「남명송증도가(南明頌證道歌)」의 중조본(重彫本)이 발견되어 보물 758호(금종주장(金宗主藏))로 지정되었다. 다소 후쇄(後刷)이긴 하지만, 새김이 매우 정교하여 바탕이 된 주자본(鑄字本)의 성격과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두드러진 것으로서는 1) 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나 있고, 2) 본문의 행렬(行列)이 곧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삐뚤어져 있고, 3)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붙거나 엇물린 것이 없고 4)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정연하여 주자(鑄字)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기술이 아직 미숙했던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그러나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주자본(鑄字本)을 중조(重彫)한 실물에 의해 살펴 볼 때, 천도이전의 관주인쇄술(官鑄印刷術)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능히 인지할 수 있다.

강화천도에서 이루어진 주자인쇄(鑄字印刷)에 관하여는 최이(崔怡)(?-1249)가 이규보(李奎報)(1168-1241)에게 대신 짓게 한 「신인상정예문(新印詳定禮文)」의 발미(跋尾)에 소상하게 적혀지고 있다. 이 책은 국가(國家)의 전례(典禮)를 다룬 것으로서 인종(仁宗)(1123-1146)때 엮은 것을 최이(崔怡)의 선친인 최충헌(崔忠獻)이 증보하여 2부(部) 작성한 다음, 예관(禮官)과 자기 집에 1부씩 두었는데 피난 나올 때 예관의 것은 황급한 나머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자기집의 것만이 남게 되어 그것마저 잃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마침내 「주자(鑄字)」로 28부(部)를 새로 찍어 여러 관사(官司)에 나누어 간직케 했다는 것이다. 인출연대(印出年代)는 정확하게 적혀지고 있지 않으나, 발미(跋尾)에 표시된 「대진양공행(代晉陽

公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최이(崔怡)가 진양공(晉陽公)에 책봉된 고종(高宗)21년(1234)이후에 대신 짓게한 것이니, 그것을 대신 지은 이규보(李奎報)가 세상을 떠난 고종(高宗)28년(1241)까지의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넓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주자본(鑄字本)은 실물이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정부(政府)의 수뇌인 최이(崔怡)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또한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음은 물론이다. 피난천도 이후는 그 전란을 수습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에 대하여 집념할 겨를이 없을 터인데 기술상 창의성(創意性)이 필요한 주자인쇄(鑄字印刷)를 그토록 손쉽게 실시한 점으로 보아서도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주자인쇄(鑄字印刷)는 천도이전에 벌써 수도인 개성(開城)에서 이루어졌음을 능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주자인쇄(鑄字印刷)는 원(元)나라의 굴욕적인 종속정사(從屬政事)가 자행된 때부터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것은 몽고가 국호를 원(元)으로 정하고 고려를 지배하였던 무렵, 동양에서 버금으로 석활자(錫活字)의 주조 인쇄를 시도한 바 있었으나 조판방법(組版方法)이 까다로우려 활자에 많은 파괴가 생겼을 뿐 아니라, 특히 쇠붙이에 묻는 먹물을 개발하지 못하여 실패한 점에서도 또한 넉넉히 수공될 수 있다. 쇠활자에는 기름먹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고려가 종전처럼 주자인쇄(鑄字印刷)를 실시하였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같이 활자인쇄기능(活字印刷機能)이 마비되어 오다가 고려말기에 이르러 신흥세력인 명(明)나라에 의해 원나라가 북(北)으로 쫓기자 국내에서는 배원사상(排元思想)이 싹트고 주권(主權)의 복구의식(復舊意識)이 대두되었다. 이렇듯 주권의식(主權意識)이 솟구치자 정전처럼 다시 서적포(書籍鋪)를 설치하고 주자(鑄字)를 만들어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책은 물론 의방(醫方) 병서(兵書) 율서(律書)에 이르기까지 고루 찍어내서 학문에 뜻을 둔 이들의 독서(讀書)를 널리 권장하여야 한다는 간청이 제기 되었다. 이것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학자인 정도전(鄭道傳)(?-1398)이 쓴 「치서적포시병서(置書籍鋪詩並序)」에 나타나고 있는 글인 점에서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마침내 공양왕(恭讓王)4년(1392) 정월에 그것이 제도상으로 조처되어 서적원(書籍院)이 생기고 주자인쇄업무(鑄字印刷業務)를 관장하는 령(令)의 직책까지 마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 해 7월 고려왕조와 조선왕조가 바뀌는 큰 혼란으로 말미암아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마비된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주자인쇄(鑄字印刷)를 제도상으로 부활시켰음은 크게 주목하여야 할 사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元)나라의 굴욕적인 지배로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주자인쇄 기능이 마비되었던 사이에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사찰인 흥덕사(興德寺)가 주자를 만들어 불서(佛書)를 찍어 냈다함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것은 중앙관서가 찍어낸 주자본등을 통해 주자인쇄의 이로운 점이 사찰에 까지 영향을 끼쳐, 넉넉한 사원경제(寺院經濟)가 일찍부터 불구류(佛具類)를 주성해 온 주물법(鑄物法)의 경험으로 이렇듯 주자를 만들어 불서(佛書)를 찍어 배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찰 나름의 재래방법으로 주성한 활자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 주자 기술이 활자의 주조(鑄造)에 있어서는 물론 조판(組版)에 있어서 다같이 중앙(中央)의 관주인쇄(官鑄印刷)보다 사뭇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출부수(印出部數)에 큰 제약을 받았고 또 오래도록 인출광포(印出廣布)하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그 주자인쇄(鑄字印刷)가 끝나자 곧 바로 또 다시 목판본(木版本)의 개판(開板)에 착수하여 그 이듬해 6월에 필역(畢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고려 금속활자인쇄사(金屬活字印刷史)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位置)는 여말(麗末) 인출(印出)의 사주본(寺鑄本)의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음이 여실히 부각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사주본(寺鑄本)은 불서(佛書)를 전문적(專門的)으로 인쇄하기 위해 설치된 주자소(鑄字所)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불구류(佛具類)를 주조(鑄造)하기 위해 설치된 주물소(鑄物所) 또는 공방(工房)에서 사찰(寺刹) 재래(在來)의 전통적(傳統的) 주조방법(鑄造方法)으로 만들어 인쇄(印刷)해낸 성격(性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비록 치졸한 사주본(寺鑄本)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나라의 굴욕적인 지배로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주자인쇄(鑄字印刷) 기능(機能)이 마비되었던 무렵에 지방(地方)의 일개(一個) 사찰(寺刹)이 주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서 고려 금속활자인쇄(金屬活字印刷)의 맥락(脈絡)을 이어 주었고 또한 그것이 오늘에 전존(傳存)되어 세상에 공표됨으로 인해 종래 반신반의(半信半疑)했던 고려조(高麗朝)의 여러 문헌에 적힌 「주자인서(鑄字印書)」의 기록을 모두 사실적인 것으로 인정 받게 하였으니 그 사주본(寺鑄本) 출현의 의의(意義)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V

세계인쇄문화사적(世界印刷文化史的)인 시각(時角)에서 금속활자인쇄(金屬活字印刷)를 살펴볼 때, 서구(西歐)에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가 15세기 중기무렵에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중국(中國)에서는 무석(無錫)과 안국지방(安國地方)의 민간출판업자(民間出版業者)들이 15세기 말기부터 16세기 중기까지의 사이에 처음으로 동활자(銅活字)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들은 그 시기로 볼 때 고구려(高句麗) 주자인쇄(鑄字印刷)와는 아예 비교할 나위가 못 된 우리나라 주자인쇄(鑄字印刷)의 창의성(創意性)이 여실히 부각된다.

주자인쇄(鑄字印刷)에 관한 초기지식(初期知識)과 그 이점(利點)은 비록 북송(北宋)의 교니활자(膠泥活字)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자인쇄(鑄字印刷)로 고안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겨레가 바로 우리의 조상(祖上)들이었다. 특히 주자인쇄(鑄字印刷)는 영토(領土)가 좁고 독서인구(讀書人口)가 한정된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고 적합하여 일찍이 고려조(高麗朝)에서 창안(創案) 보급(普及)되었던 것이다. 여기 이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비록 치졸한 여말(麗末)의 사주활자본(寺鑄活字本)이긴 하지만 오늘날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하고 귀중한 현존(現存)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며, 그것이 서구(西歐)의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공개(公開)됨으로 인해 우리 조상(祖上)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창안 발전시킨 슬기로운 문화민족(文化民族)이었음이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졌으니 실로 막중한 가치(價値)를 지닌 인쇄문화유산(印刷文化遺産)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금속활자를 독일 「구텐베르크」의 경우처럼 현대인쇄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적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선조로 계승하여 세계활자인쇄문화사상(世界活字印刷文化史上) 유례없이 다양하고 독특한 종류의 활자 그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조하여 우리 문화(文化)를 특색있게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했으니 정녕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서 큰 자람이며 긍지임을 새삼 자부케 한다.

참고문헌

<古典資料>

景 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上下卷 禡王 4年(宣光 8, 1378) 6月 鷲巖寺刊 木版本.

景 閑, 白雲和尚語錄 上下卷 禩王4年(宣光 8, 1378) 7月 鷲巖寺刊 木版本.
 法 泉, 南明泉和尚頌證道歌 高宗26年己亥 鑄字版重彫本 中書令晉陽公崔怡謹誌.
 이 奎報, 東國李相國集後集 卷 11 新印詳定禮文跋尾代晉陽公行
 鄭道傳, 三峯集 卷 1 置書籍鋪詩並序
 高麗史, 卷77 志卷 31 百官 2書籍店.
 高麗史節要 卷 35 恭讓王壬申春正月條.
 成 倪, 壩齋叢話 卷7 鑄字之法
 東國厚生新錄(編者未詳) 筆寫本 鐵鑄字.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 24 鑄字印書辨證設.
 沈 括, 夢溪篇談 卷 18 板印書籍.
 王 禎, 農 書 卷 22 卷末附錄 造活字印書法.

<韓國著述>

金元龍, 韓國古活字적요. 서울, 乙酉文化社, 1954.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問題.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千惠鳳, 高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손보기, 한국의 고탈자. 서울 寶晉齋, 1982.
 千惠鳳, 國寶---書藝·典籍---. 서울, 藝영 産業社, 1985.
 淸州興德寺址發掘調査報告書, 淸州대학교박물관, 1986

<韓國論文>(刊行物順)

金元龍, 李氏朝鮮鑄字印刷小事, 郷土서울. 제3h(1958).
 金斗鍾, 高麗鑄字本の 重刻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書誌 제 1 권 제 2호(1960).
 千惠鳳, 國立中央圖書館長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文化財 제6호(1972).
 姜周鎭, 빠라 直指心經을 보고 와서, 書誌學 제5호(1972).
 孫寶基, 直指心經----金屬活字考證의 經緯와 그 意義 도협월보, V 14 No.4(1973).
 金基泰, 高麗直指心經의 存續經緯, 국회도서관보 V.15 No.8(1973).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제6호(1974).
 千惠鳳, 高麗鑄字印刷術의 研究, 成均館大學教論文集 제22집(1976).
 金基泰, 直指心經의 保存經緯에 대한 考察, 奎章閣 6(1982).
 千惠鳳, 韓中兩國의 活字印刷와 그 交流, 嶺南大學校 民族文化論叢 제4집(1983).
 千惠鳳, 세계초유의 창안인 高麗鑄字印刷, 奎章閣 8(1984)
 千惠鳳, 高麗金屬活字印刷와 直指心體要節, 淸州興德寺址學術會議報告書(1986).
 吳國鎭, 直指心體要節의 活字鑄造考察, 淸州. 東林書館, 1986.

<중국저술 및 논문>(발행연간)

屈萬里·昌彼得, 圖書館本學要略,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65.
 劉國均, 中國古代書籍史話. 香港, 中華書局, 1973.
 昌彼得, 中國圖書史略, 板本目錄學論叢, 臺北, 學海出版社, 1977
 張秀民, 中國印刷術의 發明急機影響,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0.
 毛春翔, 古書板本常談. 香港, 中華書局, 刊年未詳.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臺北, 學海出版社, 1981.

洪北江, 古書板本學. 臺北 洪氏出版社, 1981.

<구문저술 및 논문>(발행연순)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Supplément. Paris, Ernest Leroux, 1901.

Carter, Thomas F.,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rev. by Goodrich, L.Q. 2nd ed. New York, 1955.

Books about Books: An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Book Year 1972 proclaimed by UNESCO. Frankfurt, The Book Fair, 1972.

Chon., Hye Bong, Pulcho Chikchi Simch'e Yojol, Koera Journal V.13 No.4 (1973).

Bouchez, Kaniel, 韓國學의 先驅者 모리스 꾸랑(上)(譯文), 東方學志 제51집(1986년 6월)



고려 禡王 3년(1377) 7월 淸州興德寺가 鑄字印施한 直指心體要節

고려 우왕 3년(1377) 7월 청주흥덕사가 주자인시한 직지심체요절
(고려 禡王 3년(1377) 7월 淸州興德寺가 鑄字印施한 直指心體要節)



開京에서 印出한 鑄字本을 고려 高宗 26년(1239)에 重彫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개경에서 인출한 주자본을 고려 고종 26년(1239)에 증조한 남명청화상송증도가
(開京에서 印出한 鑄字本을 고려 高宗 26년(1239)에 重彫한 南明泉和尚頌證道歌)